

<컴패션 뉴스레터 1971년 1-2월호>

(사진)

한국의 서울 김포공항에서 스완슨 여사를 맞이하는 일부 환영 위원회의 모습입니다. 어린이들이 준비한 아름다운 꽃다발은 각 환영 행사를 빛냈습니다.

부대표와 함께 한 70일의 세계 일주

(사진)

부산 도지사 사무실에 스완슨 여사를 환영하는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분주한 항구 도시인 부산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컴패션의 2번째 지휘관이라 할 수 있는 미리암 스완슨 여사가 우리 사역을 위한 세계 일주 여행을 마치고 막 돌아왔습니다. 이 여행에 본 잡지의 편집자가 동행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지칠 대로 지친 여행이긴 했지만, 매우 유익하고 가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 드리려면 이 잡지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이슈별로 정리하여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여행의 앞부분을 스완슨 여사의 눈을 통하여 몇 가지 하이라이트로 요약해 드립니다. 시카고에 있는 우리 본부 직원에게 보내는 이 글은 1970년 10월 14일 홍콩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라 꽤 피곤하네요. 오늘도 또 다른 바쁜 날이었어요.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매일이 여러 활동으로 바쁘게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많은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어느 날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 보육원 중 한 곳으로 가서, 다시 배, 버스, 기차를 갈아타고, 마지막으로 택시를 타고 한참을 걸어서야 보육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거의 모든 주요 도시의 도지사와 시장들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한국 현지 대표인 월리 에릭슨(Wally Erickson)과 관계자들은 이러한 만남이 한국에서의 우리 사역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우리의 컴패션 편을 받고 얼마나 감동하며 기뻐했는지 보셨다면, 여러분도 모두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후원자가 착용하는 것과 동일한 편을 선물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서울이라는 대도시(인구 500만 명)의 부시장 두 명은 참석하지 못했는데, 편

승하는 동안, 그들이 멀리서 눈물로 얼룩진 손수건을 흔들며 노래하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타이베이(포모사(Formosa)), 즉 지금은 대만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대만은 이름대로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온 땅이 푸른색이며, 기후는 상당히 열대성입니다. 우리 둘 다 타이베이에서 우리를 마중 나올 사람이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통관을 통과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마침내 우리는 검역을 마치고 공항 대기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애타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컴패션은 현재 대만에서 어떤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컴패션을 대신해 순회공연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 우수한 어린이 합창단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그곳을 들르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를 맞이할 사람들은 신선한 꽃을 한 아름 준비하여 바로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우리는 타이베이의 훌륭한 기독교 교회 중 한 곳에서 어린이들의 특별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방에서 우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정말 훌륭했어요!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 몇 마디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린이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일본 관계자들이 1970년 일본 엑스포에서 노래하도록 이 그룹을 직접 초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들은 미국에 와서 컴패션을 대표해 공연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콘서트 투어의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올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이 어린이들은 포모사(Formosa)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보고 싶어 합니다.

10월 10일은 자유 중국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날로서, 우리의 7월 4일에 해당하는 ¹ "쌍십절(Double-Ten Day)"입니다. 저는 시간을 내서 TV를 통해 화려하고 거대한 퍼레이드를 보았습니다. 에드(Ed)는 밀려드는 군중을 헤쳐가며 길모퉁이에서 영상과 슬라이드를 찍었습니다. ² 창카이셴(Chiang Kai-shek) 총통이 연설을 했으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완슨 여사의 편지에 덧붙여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연히도 어떤 종류의 휴일을 맞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도에서는 "빛의 축

¹쌍십절(Double-Ten Day): 중국의 건국기념일

(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D%99%94%EB%AF%BC%EA%B5%AD_%EA%B5%AD%EA%B2%BD%EC%9D%BC).

²창카이셴(Chiang Kai-shek, 1887~1975): 전 대만 총통 장제스(https://en.wikipedia.org/wiki/Chiang_Kai-shek).

제(Festival of Lights)"가 열렸고, 아이티에서는 "국군의 날"로 휴일을 맞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 같군요. 이번에는 여기서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번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전해 드리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네요.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 내내 고향에 있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느꼈습니다. 조금 아프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주님은 매일의 활동에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다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좋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가족들과 정말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컴패션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힘든 노고로 모은 기부금은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즐기는 문명과는 거리가 먼 외딴곳에서 빛도 없이 매일 일하고 있는 다양한 인종의 헌신된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계속해서 도움이 손길을 뻗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진)

스완슨 여사가 한국의 김태동(Kim Tae Dong)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특별한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이 선물은 컴패션이 한국의 시·도로부터 받은 좋은 협력에 감사의 표시로 전달된 것입니다.

컴패션이 한국의 복지사업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12명 이상의 한국 시장과 도지사들이 지난 18년 동안 한국의 가난한 어린이 수천 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공로에 대해 컴패션을 표창했습니다.

미리엄 스완슨 여사는 최근 한국 방문 일정 가운데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다양한 증서, 기념패, 선물을 받았습니다. 컴패션은 현재 158개 보육원에서 16,000명이 넘는 한국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스완슨 여사는 5백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에서 한국의 보육원을 방문하는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양택식(Taik Shik Yang) 서울 시장은 그의 사무실에서 스완슨 여사를 만나 청동으로 제작된 기념패와 각인된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표창장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마산, 광주 및 다른 도시에서 받은 표창장과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시장은 18년간 대한민국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 준 미국 컴패션의 미리엄 스완슨 여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귀하의 지속적인 노력은 수천 명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영적으로 축복을 주었고, 신체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귀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진정한 연민을 보여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양택식(Taik Shik Yang) 서울 시장

(사진)

서울시장이 미리암 스완슨(Miriam Swanson) 여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뒷줄 오른쪽 끝에서)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는 윌리 에릭슨(Wally Erickson) 한국 현지 대표이며, 연한 색 양복을 입은 두 남자는 시장의 보좌관들입니다.

타이베이 어린이 합창단

(사진)

- 타이베이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F. Y. 링(F. Y. Ling) 씨는 어린이들을 이끌고 다양한 음악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컴패션 팀이 대만을 방문하는 동안 미리암 스완슨과 에드 론을 위해 특별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 타이베이 어린이 합창단이 컴패션의 방문객들을 위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재능과 다채로운 공연은 그날 저녁을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오사카에서 열린 1970년 엑스포에서도 공연했습니다.

컴패션은 계속 성장 중이며, 이를 위해 재무관리자를 임명합니다.

- 멜빈 J. 소렌슨(Melvin J. Sorenson)

컴패션의 사역 확장에 대한 또 다른 신호로 재무관리자인 컨트롤러(일부는 “컴트롤러(Comptroller)”로 쓰기도 함)를 새롭게 영입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위튼(Wheaton) 출신의 멜빈 J. 소렌슨(Melvin J. Sorenson)을 컴패션의 임원으로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멜(Mel)은 컴패션의 행정 및 재정 업무를 맡아 감독하게 됩니다.

멜은 시카고의 에크미 프레스(Acme Press, Inc.)에서 재무 부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에크미 프레스에서 일하기 전에 그는 위튼(Wheaton)에 있는 크리스천 라이프 출판사(Christian Life Publications, Inc.)에서 13년간 근무했습니다. 1967년에는 크리스천 라이프사의 발행인 겸 부사장직을 맡았습니다.

컴패션은 우리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멜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의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 컴패션에는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유능한 기독교인 경영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지금까지 주로 헨리 하비 대표가 맡아 왔습니다.

멜은 경영 및 재무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1948년 일리노이 대학교 (University of Illinois)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경영인협회(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외 복음주의 문학협회(Evangelical Literature Overseas)의 이사, 전국 기독교학교 및 선교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Christian Schools and Christian Life Missions)의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제인(Jane)은 휘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인은 파이오니어 걸즈(Pioneer Girls) 조직에서 발행하는 트레일즈 앤드 리플렉션(Trails and Reflection) 잡지의 편집자입니다. 이들 부부는 16세인 린다(Linda)와 19세인 스티스(Steve)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멜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가 컴패션 본부에서 매일의 업무를 감당함에 있어 주님의 탁월한 인도하심을 기원합니다.

(번역 생략: 태국 관련 소식)

“70일의 세계 일주” 더 보기

- 글: 에드 론(Ed Ronne) 편집자(겸 수석 수하물 담당자)

서랍에서 양말 한 켤레를 꺼내는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최근에는 너무 많이 써서 남아빠진 큰 여행 가방을 열어 카메라, 테이프, 필름을 꺼낸 뒤, 가방 깊숙한 곳에서 양말 한 켤레를 찾아 꺼내는 것이 거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두 달 반 동안 편집자인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호텔에서 호텔로, 그리고 컴패션의 보육원에서 또 다른 보육원으로 이동하다 보면 "여행 가방 증후군"에 걸리기 쉽습니다. 물론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여행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여행 가방 속 물건들도 하나둘 없어지게 만듭니다!

스완슨 여사가 우리 여행의 첫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9월 초에 컴패션 프로젝트를 위해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컴패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후원금이 사용되는 거의 모든 주요 지역을 방문했고, 오늘날의 컴패션을 만든 많은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트를 직접 보았습니다.

참고로 컴패션은 이제 18살이 되었고, 성인이 되면 훨씬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를 더 큰 책임을 안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전 세계 수천 명의 어린이들의 삶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미래를 맞이합니다.

저는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는 데 제 편집 능력을 전부 쏟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잡지가 새로 발행될 때마다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편집자가 우리 사역의 중요한 한 측면에 대해 여러분의 부대표님과 동의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바로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카리브해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가장 유능한 이들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은 우리가 1971년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내년 한 해 여러분을 격려할 수 있는 실제 이야기들을 잡지에 소개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충실한 지지자인 여러분과의 더욱 의미 있는 삶의 연결 고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کمپاین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한 남자가 휘파람을 불며 작은 곡조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국 서울의 연세대학교 교수인 피터 반 리에롭(Peter van Lierop) 박사가 최근 کمپاین의 미리암 스완슨 부대표를 만났습니다.

“주의 얼굴 뵈오리 주의 얼굴 뵈오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이 가사는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가사이며, 멜로디 또한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51년 한국에서 대피한 후 도쿄 YMCA에 잠시 머물고 있던 한 미국인 선교사가 남자 화장실에서 찬송가 '3저 요단강 건너편에(Face to Face)'를 휘파람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그는 한국의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는 4피터 반 리에롭

³저 요단강 건너편에(Face to Face): 새 찬송가 243장

⁴피터 반 리에롭(Peter Van Lierop, 한국명: 반피득, 1918~2012): 1949년 미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사역을 담당하였으며, 1954년 학교법인 경안학원(경안고, 경안여고, 경안중, 경안여중)을 설립했다 (<https://m.kmib.co.kr/view.asp?arcid=0006331366>).

(Peter van Lierop) 박사입니다.

우리는 최근 한국을 여행하던 중에 서울에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친 후 우연히 반 리에롭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모든 것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저는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침략한 후 미군의 도움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쿄 YMCA에 머물고 있었는데,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도 마침 같은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우연히 동시에 같은 남자 화장실에 있었고, 그때 저는 "저 요단강 건너편에 (Face to Face)"를 휘파람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에버렛은 저에게 "형제님, 그 찬송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에버렛은 제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 걸 알고는 "혹시 제가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대한 편지를 작성하여, 스완슨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최전방 부대, 특히 한국군 장병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목사님은 그곳에 있는 동안 집 없는 고아 어린이들의 처참한 상황을 보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패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반 리에롭 박사님은 헌신적인 선교사 가족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1918년 시카고의 무디 성경학교(Moody Bible Institute)를 졸업하고 벨기에에서 15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큰 형 역시 무디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아프리카의 5수단 인테리어 미션(Sudan Interior Mission)에서 섬겼습니다.

따라서 컴패션이 수천 명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현재 전 세계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휘파람을 불며 YMCA 화장실에 들어온 한 기독교 선교사 덕분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시며 그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스완슨 여사와 "그녀의" 소녀들

⁵수단 인테리어 미션(Sudan Interior Mission): 1893년 설립된 국제적이고 초교파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선교단체 ([https://en.wikipedia.org/wiki/SIM_\(Christian_organization\)](https://en.wikipedia.org/wiki/SIM_(Christian_organization))).

(사진)

스완슨 여사는 부산에 도착해 김혜자(Kim Hea Ja, 12세, 왼쪽)와 김인숙(Kim In Sook, 14세)으로부터 성대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혜자는 힐사이드 보육원(Hillside Orphanage)에, 인숙은 블루버드 보육원(Bluebird Home)에서 살고 있으며, 두 보육원 모두 부산에 있습니다.) 스완슨 여사는 혜자를 10년, 인숙은 5년 정도 후원해 왔습니다.

TV 속의 컴패션

- 컴패션 TV 특별 프로그램 신규 방영

"컴패션의 어린이들(The Children of Compassion)"이라는 30분 분량의 컴패션 특별 TV 프로그램이 새해에 전국 여러 지역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사역과 후원 프로그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1970년 8월에 컬러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데일 에반스(Dale Evans)가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11개 방송국에서 방송되는 방영권을 구입했으며, 기사를 작성한 시점에서 두 개의 추가 방송이 확정되었습니다:

- KTNT TV, 워싱턴주 시애틀(Seattle), 1월 16일, 8:30-9:00 pm
- WTCN TV,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 1월 31일, 7:30-8:00 pm

방송 초기 결과는 그다지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오하이오 지역과 로스앤젤레스에서 프로그램을 처음 방송한 결과 약 150명의 새로운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더 허락되고 광고 예산이 허용되면, 더 많은 방송국에서 1971년 한 해에 걸쳐 특별 방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새해에도 일부 잡지 광고를 계속해서 게재할 예정입니다. 컴패션은 1952년 조직이 설립된 이래로 다양한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해 왔습니다.

무료 대여: 영화 "컴패션의 어린이들(The Children of Compassion)"

(이제 풀 컬러 필름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는 "컴패션의 어린이들" TV 특별 프로그램의 영상 필름 사본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키와니스(Kiwanis) 클럽, 로터리(Rotary) 클럽, 학교 학급, 교회 등의 단체 상영을 위해 제공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컴패션의 어린이들(The Children of Compassion, 16mm 필름, 사운드 상영 시간 28분)" 영상 사본을 원하는 분들께서는 아래 양식만 간단히 작성해 주시면, 요청하신 날짜에 영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컴패션의 어린이들(The Children of Compassion)" 영상을
____(날짜)에 상영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대상(단체 또는 기관명) _____

내 이름(남성, 여성, 미혼 여성) _____

주소 _____

도시 _____ 주 _____ 우편번호 _____

저는 상영이 끝난 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영상을 컴패션에 반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보낼 주소: 컴패션, 7774 Irving Park Road, Chicago, Illinois 60634

우리 어린이들의 보석과 같은 한 마디

(지난 11-12월 매거진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컴패션 어린이들의 편지 중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놓치지 않기 위해 이번 호에서도 몇 가지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후원자들이 어린이들이 쓴 편지를 받을 때 느끼는 설렘이 궁금하신가요? 이 어린이들처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소개합니다.)

- "보육원에서는 노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저는 착하고 봉사할 줄 아는 여성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 한국에서 전영자(Jun Young Ja)
-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하고, 작년보다 키도 커졌어요. 몸무게가 꽤 나가지만 엄마보다는 가벼워요." - 한국에서 박호근(Pak Ho Keen)
- "새로운 엄마, 아빠를 갖게 된 후의 행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두 분의 사랑으로

⁶키와니스 인터내셔널(Kiwanis International): 1915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창설된 국제 봉사 클럽

(<https://en.wikipedia.org/wiki/Kiwanis>).

-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 한국의 새 아들, 강춘석(Kang Chun Suk)
- “저의 취미는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지침이기 때문이에요.” - 인도네시아에서 맥슨 온당(Maxon Ondang)
 -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을 상대로 승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요.” - 한국에서 차석(Cha Suk)

최숙자(Choi Sook Ja) 어린이의 인사

사진은 부산의 칠드런즈 채리티 보육원(Children's Charity Orphanage)에 살고 있는 8살 최숙자 어린이입니다. 숙자는 후원자인 에드 론(Ed Ronne) 컴패션 커뮤니케이션 실장에게 이 특별한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에드는 지난가을 한국 출장 중에 그녀를 만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숙자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동사했습니다. 그녀는 밝고 영리한 어린 소녀이며,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유용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젊은 여성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편집자는 숙자를 돕게 되어 기쁘며, 하나님께서 그녀의 작은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생명 보험으로 두 생명을 보장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유산 기부)

- 도널드 J. 스미스(Donald J. Smith) 후원관리실장

이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생명 보험 대리인을 찾아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십시오. 생명 보험을 가입을 원하는 이유와 상황을 그에게 설명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훌륭한 계획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둘째, 장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보험을 계약해야 합니다.

셋째, 최종 지출에 필요한 금액 외에도, 빈곤한 어린이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조항이 포함되도록 총 보장 금액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비용을 1,500~2,000달러로 예상한다면, 5,000달러의 생명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례 비용이 지불된 후 남은 금액은 컴패션에 지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돕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생명 보험은 두 배로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생명 보험을 통해 힘없는 어린이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십니까?

생명 보험을 통해 기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유익한 설명을 원하시면, 다음 양식을 작성하여 오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کمپیشن

7774 West Irving Park Road
Chicago, Illinois 60634

친애하는 스미스 씨,
제 유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 "생명 보험을 통해 기부할 수 있는 방법"
- () "사람들이 유언장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37가지"

이름 _____
주소 _____
도시 _____ 주 _____ 우편번호 _____